번역학연구
2014년 가을 제15권3호

직접 인용 구문의 번역 글쓰기 연구
-『위대한 개츠비』의 대화문 단락 구성을 중심으로-

김 혜 영
(공주교육대학교)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소설 번역에서 직접 인용 구문이 포함된 단락의 구성 방식을 분석하는 데 있다. 번역에서 단락의 재구성 문제를 고찰한 연구로는 김혜영(2012)이 있으나, 논리적인 비문학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인용문의 번역 문제를 고찰한 연구로는 이영옥(2002)과 강지혜(2008)가 있는데, 이영옥(2002)은 한국어와 영어 간의 언어 구조적 차이에 집중하였고, 강지혜(2008)는 뉴스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뉴스 텍스트는 사실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서 그 문장이 서술체의 특성을 지닌다. 직접 인용문이라 하더라도 종결 어미에서 상대 대우법이 중화되고 '-고, -며' 등의 간접 인용 표지를 사용(김정남 2005: 286-87)하기 때문에, 큰따옴표만 생략하면 간접 인용문과 흡사하다. 반면, 소설의 직접 인용문은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를 담은 대화문이므로 현장감을 높

www.kci.go.kr

이기 위해 대화체로 나타낸다. 소설의 인용문은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를 실감나게 전달하는 대화 상황의 현장성이 강조될 뿐 아니라 지시문과 함께 텍스트 전개의 큰 축을 차지하므로, 그 번역은 출발어와 도착어 간의 언어 구조적인 차이를 넘어서 담화와 텍스트 차원에서 좀 더 거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는 단락을 분석 단위로 삼으며, 어떤 번역이 좋은 번역인가 하는 평가나 처방적 논의보다는 실제 번역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번역 방법과 그러한 번역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그리고 그러한 번역 방법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장 부호를 포함하여 문장 및 단락의 구성 방식에 대해 원문과 번역문 간, 그리고 번역문들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화문의 비중이 매우 높은 소설 번역에서 번역자가 효과적인 번역 전략을 선택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는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이다. 세계 명작의 반열에 오르는 작품이기도 하거니와, 2013년 5월에 영화로 개봉되면서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내로라하는 번역가들의 다양한 번역본들이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며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본고에서는 판매량이 많은 번역본을 독자들이 선호하는 번역본으로 간주하고, 네이버 도서 정보 웹페이지 및 교보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판매량순으로 검색하여 1위부터 4위까지의 번역본들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1]. 그리고 예상 독자층에 따른 번역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아동 대상의 번역본 2종을 추가하였다[2].

[ST] F. Scott Fitzgerald (2000) *The Great Gatsby*, London: Penguin Classics.[3]

---

1) 2014년 6월 18일 현재, 네이버 도서 정보 웹페이지 및 교보문고 홈페이지 모두 김욱동 옮김(2010), 김석희 옮김(2013), 김영하 옮김(2009), 이기선 옮김(2012)이 4위 안에 올라 있다.

2) 김욱동 옮김(2007)은 한 번역자가 예상 독자에 따라 번역 방법을 어떻게 달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택한 텍스트이다. 김선희 편(2002)은 아동도서 출판 전문업체인 지경사에서 출판한, 초등학생을 위한 논술 대비 세계 명작 전집(120권) 중 하나이다.

3)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는 1925년 스크리브너(Scribner) 출판사에서 처음 출판되었다. 이후 서로 다른 편집자들에 의해 여러 출판사에서 다른 판본들이 출판되었는데, 이 작품을 번역한 국내 출판사에 직접 문의한 결과, 김석희 옮김(2013)은 펭귄클래식의 1990년 판본, 김영하 옮김(2009)과 김욱동 옮김(2010)은 케임브리지대학교출판부의 1991년 판본을 원문으로 삼았으며, 이기선 옮김(2012)은 구글 프로젝트에서

www.kci.go.kr

[TT1] 김석희 옮김 (2013)『위대한 개츠비』, 서울: 열림원.
[TT2] 김영하 옮김 (2009)『위대한 개츠비』, 파주: 문학동네.
[TT3] 김욱동 옮김 (2010)『위대한 개츠비』, 서울: 민음사.
[TT4] 이기선 옮김 (2012)『위대한 개츠비』, 서울: 더클래식.
[TT5] 김욱동 옮김 (2007)『위대한 개츠비』, 파주: 푸른숲주니어.
[TT6] 김선희 편 (2002)『위대한 개츠비』, 서울: 지경사.

먼저 2장에서는 국문과 영문의 전형적인 직접 인용문 단락의 형식을 비교해 보고, 3장에서는 위의 텍스트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번역문에 나타나는 직접 인용문 단락 구성의 형식적 특성과 그에 따른 텍스트 효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3장에서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직접 인용문 단락의 유형별 번역 방법을 정리하도록 한다.

2. 직접 인용 구문 단락의 형식

2.1. 국문

직접 인용문이란 원화자(original speaker)의 말이나 글을 있는 그대로 인용, 전달하는 문장이다. 소설에서 직접 인용문은 등장인물의 발화를 그대로 옮긴 문장으로서, 대화문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문학 텍스트의 전형적인 대화문 단락 형식은 원고지 작성법을 따른다.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서는 직접 인용문에 대한 원고지 작성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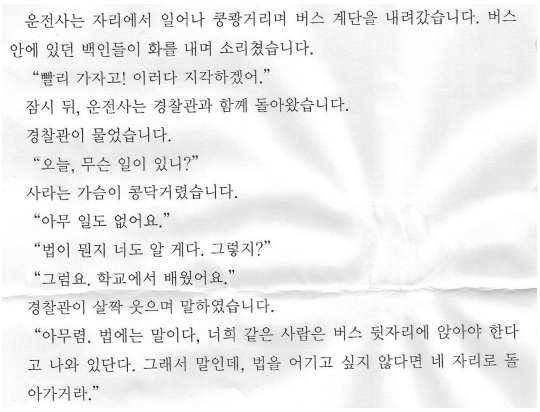
> 큰따옴표나 작은따옴표가 들어간 글을 쓸 때에는 첫 칸은 비우고 둘째 칸에 따옴표를 쓰며, 셋째 칸부터 글을 씁니다. 따옴표 안의 글이 길어서 줄을 바꾸어 써야 할 때에는 첫 칸을 비우고 둘째 칸부터 이어서 써 나갑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1a: 169.)

제공되는 원문을 다운받아서 번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원문으로 삼은 텍스트는 펭귄클래식의 2000년 출판본인데, 1990년 출판본을 재인쇄한 것이다. 출판사별 원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케임브리지대학교출판부 1991년 판본을 비롯하여 구글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여러 원문 텍스트들을 비교하였다.

www.kci.go.kr

위의 원고지 작성법에 따르면, 직접 인용문은 줄을 바꾸어 별도의 단락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원고지 작성법에 따른 대화문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초등 국어 읽기 5-1, 49쪽.



운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쿵쾅거리며 버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버스 안에 있던 백인들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자고! 이러다 지각하겠어."

잠시 뒤, 운전사는 경찰관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니?"

사라는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법이 뭔지 너도 알 게다. 그렇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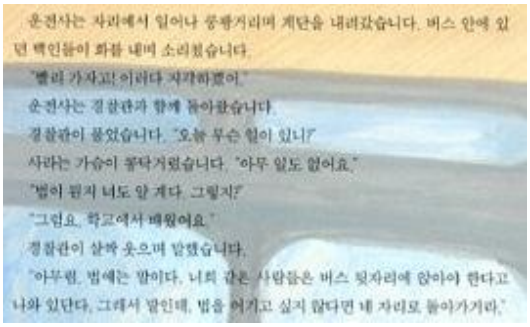
"그럼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경찰관이 살짝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아무렴. 법에는 말이다, 너희 같은 사람은 버스 뒷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나와 있단다. 그래서 말인데, 법을 어기고 싶지 않다면 네 자리로 돌아가거라."

위 글은 윌리엄 밀러가 지은 *BUS, RIDE*의 우리말 번역본 『사라, 버스를 타다』의 일부이다. 실제 번역본인 박찬석 옮김(2004)과 비교하면 교과서 글은 박찬석의 번역본을 직접 인용문의 원고지 작성법에 맞게 편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 박찬석 옮김 (2004) 『사라, 버스를 타다』, 서울: 사계절.[4)]



운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쿵쾅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버스 안에 있던 백인들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자고! 이러다 지각하겠어."

운전사는 경찰관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니?"

사라는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법이 뭔지 너도 알 게다. 그렇지?"

"그럼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경찰관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렴. 법에는 말이다, 너희 같은 사람들은 버스 뒷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나와 있단다. 그래서 말인데, 법을 어기고 싶지 않다면 네 자리로 돌아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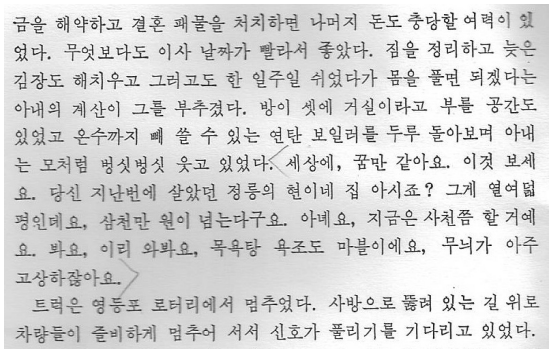
4) 인터파크도서 웹페이지에서 다운 받음(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shopNo=0000400000&sc.prdNo=2290956&bid1=search&bid2=product&bid3=title&bid4=001).

www.kci.go.kr

<그림 2>에 보인 박찬석 옮김(2004)에서는 대화문을 시작할 때에 줄을 바꾸지 않은 곳도 있고, 줄을 바꾸었더라도 따옴표 안의 문장이 길어서 줄을 바꾸어 쓸 때 둘째 칸부터 이어 쓰지 않고 첫 칸부터 이어 썼다.

교과서의 글은 반드시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하지만, 도서로 출판된 문학은 그렇지 않다. 도서관 및 서점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도서로 출판된 아동 문학은 창작이든 번역이든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다. 성인 문학은 이러한 원고지 작성법을 정확하게 그대로 따른 예를 찾기 어려웠다. 대체로 대화문을 시작할 때에는 줄을 바꾸어서 둘째 칸에 따옴표를 쓴다는 규정을 잘 따르고 있지만, 따옴표 안의 문장이 길어서 줄을 바꾸어 써야 할 때에는 둘째 칸이 아니라 <그림 2>처럼 첫 칸부터 이어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심지어 대화문인데도 아래 <그림 3>과 같이 줄을 바꾸지 않고 따옴표도 없이 지시문에 연결하기도 한다.

〈그림 3〉 양귀자 (1987)『원미동 사람들』, 서울: 문학과지성사, 24쪽.



금을 해약하고 결혼 패물을 처치하면 나머지 돈도 충당할 여력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사 날짜가 빨라서 좋았다. 짐을 정리하고 늦은 김장도 해치우고 그러고도 한 일주일 쉬었다가 몸을 풀면 되겠다는 아내의 계산이 그를 부추겼다. 방이 셋에 거실이라고 부를 공간도 있었고 온수까지 빼 쓸 수 있는 연탄 보일러를 두루 돌아보며 아내는 모처럼 벙싯벙싯 웃고 있었다. 세상에, 꿈만 같아요. 이것 보세요. 당신 지난번에 살았던 정릉의 현이네 집 아시죠? 그게 열여덟 평인데요, 삼천만 원이 넘는다구요. 아네요, 지금은 사천쯤 할 거예요. 봐요, 이리 와봐요, 목욕탕 욕조도 마블이에요, 무늬가 아주 고상하잖아요.

트럭은 영등포 로터리에서 멈추었다. 사방으로 뚫려 있는 길 위로 차량들이 줄비하게 멈추어 서서 신호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위 글은 작중 화자가 '나'인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다. 위 예에서 '세상에, ~ 고상하잖아요.'는 작중 화자의 아내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아내는 모처럼 벙싯벙싯 웃고 있었다.'라는 작중 화자의 말(지시문) 뒤에 따옴표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어 붙였다.

이러한 형식이 2000년대 소설에서는 흔하게 나타난다. 김영하, 박민규 등의 소설에서도 대화문이 줄 바꿈 및 따옴표 없이 지시문에 연결되어 있고, 황정은의『100인의 그림자』에서는 대화문을 따옴표 없이 줄만 바꾸어 썼다. 그러나

www.kci.go.kr

상대적으로 아동 문학에서는 창작이든 번역이든 원고지 작성법에 따른 전형적인 직접 인용문 단락 형식을 유지하는 사례가 많았다.

2.2. 영문

우리의 원고지 사용법과 달리 영문에서는 단락을 구성할 때 직접 인용문을 별도의 줄에 떼어 쓰지 않고 지시문과 이어서 쓰는 일이 흔하다. 『위대한 개츠비』 원문에 나타나는 영문의 대화문 단락 구성은 크게 다음의 일곱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5].

① ["대화문."]
② [<"대화문," 지시문.> ("대화문." 또는 지시문.)]
③ [<"대화문," 지시문, "대화문."> ("대화문." 또는 지시문.)]
④ ["대화문." 지시문. ("대화문." 또는 지시문.)]
⑤ [("대화문." 또는 지시문.) <지시문: "대화문.">]
⑥ [(지시문.) <지시문(:) "대화문," 지시문.>]
⑦ [(지시문.) 지시문. "대화문."][6]

위에서 ①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은 대화문과 지시문이 줄 바꿈 없이 이

5) 여기에서 사용한 기호를 설명하면, < >는 전체가 한 문장임을 뜻하며, ( )는 생략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대화문 끝에 물음표(?)나 느낌표(!)가 올 경우, 이어지는 지시문이 대문자로 시작하면 앞의 대화문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물음표나 느낌표를 온점(.)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이어지는 지시문이 소문자로 시작하면 앞의 대화문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물음표나 느낌표를 반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았다. 대화문을 설명하는 지시문이 대화문 앞에 오는 경우 같은 판본 안에서도 콜론(:)과 반점(,)이 혼용되고 생략되기도 하였으며, 출판사에 따라서도 부호의 사용이 달랐다. 본고에서 원문으로 삼은 판본에서는 콜론의 빈도가 더 높아 콜론을 대표 기호로 사용하였다.

6) 이러한 구조의 단락은 73쪽과 126쪽 단 두 곳에만 나타났다. 스크리브너출판사의 2004년 판본도 동일하였으나, 케임브리지출판부 1991년 판본을 비롯한 다른 여러 원문에는 73쪽의 예가 지시문에 온점이 아닌 반점이 찍혀 있고 이어지는 대화문도 소문자로 시작하였다. 따라서 원문의 판본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⑦의 구조가 쓰인 곳은 하나뿐이다.

www.kci.go.kr

어져 있다. 이는 원고지 작성법에 따른 우리의 전형적인 대화문 단락 형식에 맞지 않는다. 게다가 문장 부호를 자세히 보면 대화문과 지시문이 반점(,)이나 콜론(:)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하나의 대화문 중간에 지시문이 삽입되기도 하는 등 우리의 문장법과도 다르다.

사실, ②, ③, ⑤, ⑥에서처럼 대화문과 지시문이 마침표가 아닌, 반점이나 콜론으로 연결된 경우 이들은 통사적으로 한 문장이다. 이때 지시문(reporting clause)의 동사로는 'say'와 같은 전달 동사(reporting verb)가 사용되고, 대화문(reported speech)은 이 지시문 동사의 목적어가 된다. 따라서 지시문 동사의 목적어인 대화문은 지시문에 안긴 문장이 되고, 지시문은 대화문을 안은 문장이 되는 것이다.

이영옥(2002)은 이러한 지시문을 '인용도입부'라 하였고, 김형철(2003)은 '인용상위문'이라 이름하였다. 영문에서는 인용도입부 혹은 인용상위문에 해당하는 지시문이, 직접 인용절에 해당하는 대화문의 앞, 뒤, 중간 어디에라도 위치할 수 있다. 위에서 ②는 지시문이 대화문 뒤에, ③은 지시문이 대화문 중간에, ⑤는 지시문이 대화문 앞에 위치하였다. ⑥과 같이 대화문이 지시문 중간에 위치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대화문이 지시문에 안긴 구조가 쉽게 드러나지만, 지시문이 대화문의 앞이나 뒤에 위치할 때에는 언뜻 보기에 접속 관계처럼 보이고, 지시문이 대화문 중간에 있을 때에는 마치 지시문이 대화문 안에 안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원문의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옮기기가 쉽지 않다.

여하튼 이렇게 대화문과 지시문이 반점이나 콜론으로 연결되었을 때는, 둘의 순서가 어떠하든 이들은 통사적으로 한 문장이므로 한 단락 안에 두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④나 ⑦에서처럼 대화문과 지시문 사이에 온점(.)과 같은 마침표가 사용되었다면 이들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장이므로 우리의 원고지 사용법에 따른 단락 구성에서는 서로 다른 단락으로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 장에서는『위대한 개츠비』의 번역본 6종을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대화문 단락의 구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번역 방법적 특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www.kci.go.kr

3. 직접 인용 구문 단락 번역의 형식적 특성

3.1. 대화문과 지시문의 단락 분리 및 단락 통합

1) 대화문과 지시문의 단락 분리

영문의 대화문 단락 구성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대화문과 지시문을 줄 바꿈 없이 한 단락 안에 둔다는 점이다.

(1)

<table>
<tr><td colspan="2">[ST]
“Much better.” I turned again to my new acquaintance. “This is an unusual party for me. I haven’t even seen the host. I live over there-” I waved my hand at the invisible hedge in the distance, “and this man Gatsby sent over his chauffeur with an invitation.”(49)</td></tr>
<tr><td>[TT1]
“많이 좋아졌습니다.” 나는 새로 알게 된 남자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이건 나한테 아주 이례적인 파티예요. 아직 집주인도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나는 저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가리켰다. “그런데 개츠비 씨가 운전기사를 시켜서 초대장을 보냈더군요.”(79)</td><td>[TT2]
“좀 나아졌어요.” 나는 다시 새 친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런 자리는 영 편치가 않네. 아직 여기 주인도 못 만나 봤다니까. 난 바로 요 옆에 살고 있는데.” 나는 손을 들어 잘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가리켰다. “개츠비라는 사람이 운전사를 시켜 초대장을 보내왔더라구.”(64-65)</td></tr>
<tr><td>[TT3]
“많이 좋아졌어요.”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방금 만난 남자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저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파티입니다. 아직 주인도 만나 보지 못했거든요. 전 저쪽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가리켰다. “개츠비라는 분이 운전기사를 통해 제게 초대장을 보내 왔더군요.”(76)</td><td>[TT4]
“네. 아까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새로 알게 된 남자에게 고개를 돌렸다.
“이런 파티는 처음입니다. 아직 주인도 만나지 못했거든요. 난 바로 저기 옆집에 삽니다.”
나는 손을 들어 좀 떨어져 잘 보이지 않는 우리 집 방향의 울타리를 가리켰다.
“개츠비가 운전기사를 통해 초대장을 보냈어요.”(63)</td></tr>
<tr><td>[TT5]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남자 쪽으로 얼</td><td>[TT6]
“아까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뒤 나는 새롭게 사귄</td></tr>
</table>

www.kci.go.kr

굴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나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파티여서요. 아직 주인도 만나 보지 못했거든요.” 나는 손을 들어 울타리 쪽을 가리켰다. “개츠비라는 분이 기사 편에 초대장을 보내왔어요.”(64)	남자를 향해 말했다. “이런 파티는 처음이에요. 아직 주인도 만나 보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이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보이지도 않는 울타리 쪽을 가리켰다. “이 집 주인이 운전사를 통해 초대장을 보내 왔더군요.”(50-51)

위 예의 원문을 보면 대화문과 지시문이 한 단락 안에 뒤섞여 있다. 원문의 단락 구조는 [“대화문1.” 지시문1. <“대화문2,” 지시문2, “대화문3.”>]이다. 여기서 <“대화문2,” 지시문2, “대화문3.”>은 이 전체가 하나의 문장이므로 한 단락 안에 두는 것이 우리의 단락 구성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하지만 대화문1과 지시문1은 각각 독립적인 하나의 문장이므로, 우리의 단락 구성법에서는 각각 하나의 단락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문의 문장 구조를 유지한다면 위의 원문은 총 3단락으로 나누어야 한다. 그런데 위의 번역문들을 보면 모두 <“대화문2,” 지시문2, “대화문3.”>을 한 문장으로 번역하지 않고 서로 다른 문장으로 분리하였다. 그렇다면 위 번역문에서는 총 5단락으로 분리해야 한다.

위 예에서 [TT1]~[TT3]은 원문의 단락 구성을 따라 한 단락으로 처리한 반면, [TT4]~[TT6]은 우리의 대화문 단락 형식을 따라 대화문과 지시문을 줄 바꿈 하여 서로 다른 단락으로 분리함으로써 총 5개의 단락으로 나누었다. 다만, 따옴표 안의 문장이 길어서 줄을 바꾸어 써야 할 때, [TT4]와 [TT5]는 두 번째 줄의 첫 칸을 비우지 않았지만, [TT6]은 두 번째 줄의 첫 칸을 비움으로써 우리의 원고지 작성법을 정확하게 준수하여 대화문 단락을 만들었다.

[TT5]와 [TT6]은 아동 대상의 번역문이므로 교육적 차원에서 우리의 규범을 준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해 성인 대상의 번역문은 [TT4]를 제외하면 모두 원문의 단락 구성을 따랐다. 안정효(2006: 92, 2007: 220)는 우리의 대화문 줄 바꿈 형식이 비논리적이며 누가 한 발화인지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주체의 변화에 따라 단락을 나누는 영문식 단락 구성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며, 심지어 자신은 우리말로 소설을 쓸 때에도 대화문의 줄 바꿈은 영문의 단락 개념을 지킨다고 하였다.

www.kci.go.kr

초등학교 국정 국어 교과서에 원고지 사용법을 실어 학교에서 원고지 작성법을 교육하고는 있지만, 사실 원고지 작성법은 편집과 인쇄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만든 것일 뿐, 국어어문규정과 같은 강제성을 지닌 규정은 아니다. 그렇다면 대화문의 단락 구분은, 원문의 형식을 따를 것이냐 우리의 규범을 따를 것이냐 하는 단순한 양자택일의 차원이 아니라, 의미 전달의 측면에서 해당 대화문의 발화자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며 또 텍스트의 조직적인 측면에서 단락의 개념이나 요건에 가장 합당한 방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고민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한편, 원문에서 대화문이 포함된 단락은 대체로 대화문으로 시작한다. 지시문으로 시작하는 단락에 대화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⑤에서처럼 [(지시문.) <지시문: “대화문.”>]의 구조나 ⑥에서처럼 [(지시문.) <지시문(:) “대화문,” 지시문.>]의 구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딱 한 곳에서 ⑦의 구조 [지시문. “대화문.”]을 발견하였다.

(2)
[ST] She looked at him blindly. “Why-how could I love him-possibly?” (126)
[TT1] 그녀는 멍하니 개츠비를 바라보았다.
“정말……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게 되겠어요? (205)
[TT2] 그녀가 그를 멍한 눈길로 올려다보았다. “왜…… 아니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겠어?”(166)
[TT3] 그녀는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다. “아니……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어떻게요?”(187)
[TT4] 데이지는 멍하니 개츠비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176)

위 예의 원문은 지시문으로 시작하며, 지시문에 온점이 찍혀 있다. (1)에서 보았듯이, [TT4]는 대화문과 지시문의 단락을 분리한 번역본이지만 [TT1]은 원문의 단락 구성을 따른 번역본인데, 위의 예에서는 [TT1]도 지시문과 대화문의 단락을 분리하였다. 원문의 단락이 지시문으로 시작할 때 지시문에 콜론이나 반점이 아닌 온점을 찍어서 대화문 앞에 둔 것은 원문에서도 상당히 예외적인

www.kci.go.kr

상황이다. 그래서 번역자는 지시문과 대화문의 단락을 분리함으로써 원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락 구성의 규범을 지키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2) 대화문과 지시문의 단락 통합

앞의 예들이 원문의 한 단락을 서로 다른 단락으로 분리한 것이라면, 다음은 원문의 두 단락을 한 단락으로 통합한 예이다.

(3)

[ST] When we came in she held us silent for a moment with a lifted hand.

"To be continued," she said, tossing the magazine on the table, "in our very next issue."

Her body asserted itself with a restless movement of her knee, and she stood up. (22-23)

[TT1] 우리가 방에 들어가자 베이커가 한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고는 "다음 호에 계속. 기대하시라." 하면서 잡지를 탁자 위에 내던졌다.

그녀의 몸은 무릎을 끊임없이 움직임으로써 그 존재를 주장하기 시작하더니 곧 일어섰다.(37)

[TT2] 우리가 들어가자 그녀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다음 호에," 그녀는 잡지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계속됩니다."

그녀는 초조하게 무릎을 떨어대더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31)

[TT3] 우리가 방 안에 들어가자 그녀는 손을 들어 잠시 조용히 기다려 달라고 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잡지를 탁자 위에 던졌다.

그녀는 불안하게 무릎을 들썩여 몸을 펴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38-39)

[TT4] 우리가 들어서자 베이커는 손을 들어 잠시 조용히 해 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잡지를 탁자 위에 던졌다. 베이커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릎을 들썩이더니 결국 일어섰다. (28)

위 예에서는 원문이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TT2]와 [TT3]은 원문의 단

www.kci.go.kr

락 구분을 그대로 따른 반면, [TT1]과 [TT4]는 원문의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을 하나의 단락으로 통합하였다. [TT2]나 [TT3]과 달리 [TT1]과 [TT4]에서 두 단락을 한 단락으로 합칠 수 있었던 이유는, 원문의 두 번째 단락을 대화문으로 시작하지 않고 대화문을 인용절로서 지시문에 내포하였기 때문이다. 즉, 주어가 동일한 두 지시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한 단락으로 통합한 것이다. [TT1]과 [TT4]에서 첫 번째 문장은 주절의 주어가 '베이커가'([TT1]) 혹은 '베이커는'([TT4])이다. 두 번째 문장의 생략된 주어 역시 앞 문장의 주어와 동일하다.

그런데 [TT1]은 앞의 두 단락만 합친 반면, [TT4]는 세 단락을 모두 한 단락으로 합쳤다. 둘의 차이를 확인하면, [TT1]은 원문의 세 번째 단락의 주어를 원문의 주어대로 '그녀의 몸은'으로 번역한 반면, [TT4]는 '베이커는'이라는 주어를 사용함으로써 앞의 지시문들과 주어를 일치시켰다. 즉, [TT4]는 주어가 동일한 지시문 세 개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한 단락으로 통합한 것이다. 이렇게 주어를 일치시킴으로써 한 단락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은 텍스트상에서 문장 간의 연결을 긴밀하게 만듦으로써 결속구조(cohesion)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요컨대, 원문에서 대화문과 지시문이 한 단락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전통적인 단락 구성에서는 대화문을 지시문과 같은 줄에 이어 쓰지 않기 때문에 번역문에서는 대화문과 지시문을 서로 다른 단락으로 나누기도 한다. 또, 원문에서 새 단락이 대화문으로 시작하더라도 대화문을 지시문에 안긴 구성으로 번역하고 이때 지시문의 주어가 앞 단락 지시문의 주어와 동일하면 두 단락을 합치기도 한다. 원문의 단락 구조와 달리 대화문과 지시문을 서로 다른 단락으로 분리하는 것은 단락 구성과 관련한 도착어권의 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방안이고, 문장의 주어를 바꾸어 단락을 통합하는 것은 문장 간의 결속구조를 강화함으로써 텍스트성(textuality)[7]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

7) 보그란데&드레슬러(1981)는 텍스트를 텍스트답게 만드는 특성의 총체를 텍스트성이라 칭하고, 결속구조(cohesion), 결속성(coherence), 의도성(intentionality), 용인성(acceptability), 정보성(informativity), 상황성(situationality),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텍스트성의 일곱 가지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www.kci.go.kr

3.2. 대화문과 지시문의 문장 분리 및 문장 통합

1) 대화문과 지시문의 문장 분리

영문에서 대화문과 지시문이 반점이나 콜론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들은 대화문이 직접 인용절로서 지시문에 안긴 구조로 이루어진 한 문장이다. 그렇다면 국문으로 옮길 때도 '"대화문"라고 말했다.' 혹은 '"대화문" 하고 말했다.'와 같이 대화문이 지시문에 안긴 구조의 한 문장으로 번역하는 것이 영문의 통사 구조를 가장 적절히 반영하는 방법이다.[8] 『위대한 개츠비』의 초창기 번역본들도 '-라고'나 '하고' 등의 인용 표지를 사용하여 대화문을 지시문에 안긴 구조로 나타내었다(김욱동 2013: 137-47). 그러나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번역문들은 인용 표지 없이 대화문과 지시문을 각각 독립적인 문장으로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번역 방법이었다. 여기서는 원문의 문장 구조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가. "대화문," 지시문.

2.2에서 영문은 인용도입부 혹은 인용상위문에 해당하는 지시문이, 직접 인용절에 해당하는 대화문의 앞, 뒤, 중간 어디에라도 위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원문에서 대화문과 지시문이 한 문장으로 연결될 때 이들의 순서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지시문이 대화문 뒤에 위치하는 유형이다.

(4)
[ST] "Things went from bad to worse," suggested Miss Baker.(19)
[TT1] "사태가 점점 나빠지기만 했대요." 베이커가 옆에서 말을 거들었다.(31)
[TT2] "상황이 더 나빠졌겠네." 미스 베이커가 끼어들었다.(26)
[TT3] "상황이 점점 안 좋아졌겠네." 미스 베이커가 끼어들었다.(33)
[TT4] "상태가 점점 나빠진 거지."
베이커가 끼어들며 말했다.(23)

8) 김형철(2003: 267-68)은 '"I don't know," said Al.'의 가장 바람직한 번역, 즉 가장 국어에 가까운 번역은 '"나는 몰라"라고 앨이 말했다.'이라고 하였다.

www.kci.go.kr

위 예의 원문은 한 단락이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문의 대화문에 반점이 사용되었고 지시문이 소문자로 시작하므로 한 문장이지만, 번역문은 모두 대화문과 지시문을 서로 다른 문장으로 분리하였다. 위 예의 원문에서 대화문은 지시문 동사 'suggest'의 목적어에 해당한다. 하지만 번역문에서는 모두 대화문과 지시문을 별개의 문장으로 분리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번역문들은, 지시문이 대화문 뒤에 위치할 때는 항상 대화문과 지시문을 서로 다른 문장으로 분리하였다.

대화문과 지시문의 이러한 문장 분리는 우리 소설의 담화 관습을 따른 것이다. 실제 국어 창작 소설을 보면 대화문에 '-라고 말했다'를 붙여서 대화문을 지시문에 안긴 구조로 표현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체로 대화문을 단독 문장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대화문과 지시문을 서로 다른 문장으로 분리하게 되면 대화문의 현장성이 강화되고 문장이 간결해지는 효과를 가진다. 대화문의 비중이 높고 대화문이 텍스트 전체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는 소설에서는, 대화문을 직접 인용절로 처리하여 지시문에 내포하는 것보다 대화문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글의 전개를 더 빠르게 하며 독자의 가독성 및 용인성(acceptability) 또한 높이는 방안이다.[9)]

나. 지시문: "대화문."

원문에서 지시문이 대화문의 앞에 위치할 때는 지시문에 콜론이나 반점이 사용된다.[10)] 지시문의 동사로는 발화동사보다 발화의 태도나 발화 당시의 상황

9) <"대화문," 지시문>의 구조를 모두 대화문이 지시문에 직접 인용절로 안긴 구조로 번역하면 아마 번역 소설에서 인용격 조사의 비율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국어 비번역문 코퍼스(100만 어절)와 번역문 코퍼스(100만 어절)를 대상으로 번역문의 언어적 특성을 연구한 김혜영(2009: 69)에 따르면, 인용격조사의 출현 횟수가 문학 비번역문 코퍼스(30만 어절)는 163회임에 반해 문학 비번역문 코퍼스(30만 어절)는 464회로, 문학 텍스트의 경우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인용격조사의 빈도가 2.84배 높다. 문학 텍스트에서 전체 격조사 중 인용격조사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비번역문은 0.192%, 번역문은 0.531%로,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약 2.76배 높다.

10) 출판사에 따라 콜론과 반점의 사용에 차이가 있다. 물론, 둘 중 하나만 사용한 판본은 없었으며, 같은 예문이라도 출판사에 따라 콜론을 사용하기도 하고 반점이나 온점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예문 (5)의 경우 케임브리지출판부(1991) 판본

www.kci.go.kr

을 나타내는 동사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지시문에 동사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5)
[ST] "Come back in an hour, Ferdie." Then in a grave murmur: "His name is Ferdie."(83)
[TT1] "한 시간 뒤에 와줘요, 퍼디." 그러고는 진지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사람 이름이 퍼디예요."(135)
[TT2] "퍼디, 한 시간 후에 올래?" 그러고는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운전사 이름이 퍼디야."(108)
[TT3] "퍼디, 한 시간 뒤에 돌아와요." 기사에게 말하고 나서 그녀는 엄숙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사람 이름은 퍼디예요."(125)
[TT4] "퍼디, 한 시간 뒤에 돌아와요."
데이지는 운전기사에게 말하고 다시 정색을 하며 소곤거렸다.
"저 사람이 퍼디예요."(110)

위 예의 원문에서는 대화문을 설명하는 지시문이 대화문 앞에 위치한다. 'Then in a grave murmur:'는 뒤에 오는 대화문을 설명하는 지시문이다. 지시문에는 문장부호로 콜론을 사용하였고, 지시문의 주어와 동사도 생략하였다. 이렇게 원문에서 지시문이 대화문 앞에 위치할 때도, 지시문의 문장 부호가 콜론이든 반점이든 번역문에서는 항상 지시문과 대화문을 서로 다른 문장으로 분리하였다. 그 요인과 효과는 앞서 기술한 바와 동일하다.

다. "대화문," 지시문, "대화문."

지시문이 대화문 중간에 삽입될 때에도 다음과 같이 대화문과 지시문을 각기 독립적인 문장으로 분리하는 번역이 대부분이다.

(6)
[ST] "When they do get married," continued Catherine, "they're going West to live for a wile until it blows over."(36)
[TT1] "저 두 사람이 결혼하면……" 캐서린이 말을 이었다. "폭풍이 잠잠해질 때까지 한동안 서부에 가서 살 거래요."(59)

에는 콜론 대신 반점이 사용되었다.

www.kci.go.kr

[TT2] “둘이 결혼을 하면요.” 캐서린이 말을 이었다. “잠잠해질 때까지 서부에 가서 살 거래요.”(48)
[TT3] “두 사람은 결혼을 하면요, 잠잠해질 때까지 잠시 서부에 가서 살 거래요.” 캐서린이 말을 이었다.(57)
[TT4] “언니는 재혼하면 뒷말이 없어질 때까지 서부에 가서 산대요.” 캐서린이 말을 이었다.(46)

위 예의 원문은 통사적으로 하나의 문장인 대화문 중간에 지시문을 삽입함으로써 한 문장을 세 조각으로 나누었다. 그렇다고 해도, 문장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고 문장이 끝날 때는 마침표를 쓴다는 문장 구분의 형식에 따르면 한 문장이다. 지시문의 앞뒤에 놓인 두 대화문의 문법 관계를 분석하면, 앞에 놓인 대화문이 뒤에 놓인 대화문의 시간부사절에 해당하며 이 전체 대화문은 지시문 동사의 목적어가 된다.

원문에서 지시문이 대화문의 앞이나 뒤에 위치할 때는 대화문과 지시문을 내포 구조의 한 문장으로 번역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지시문이 대화문 중간에 삽입된 경우는 한 문장으로 번역한 사례가 하나 있었다.

(7)
[ST] “To be continued,” she said, tossing the magazine on the table, “in our very next issue.” (23)
[TT1] 그러고는 “다음 호에 계속. 기대하시라.” 하면서 잡지를 탁자 위에 내던졌다. (37)
[TT2] “다음 호에,” 그녀는 잡지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계속됩니다.” (31)
[TT3]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잡지를 탁자 위에 던졌다. (39)
[TT4] 그리고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잡지를 탁자 위에 던졌다. (28)

위 예의 원문도 통사적으로 하나의 문장인 대화문 중간에 지시문을 삽입함으로써 한 문장을 세 조각으로 나눈 문장이다. 뒤에 오는 대화문이 앞에 놓인 대화문의 부사구이고, 이 전체 대화문은 지시문 동사 ‘say’의 목적어에 해당한다.

www.kci.go.kr

이 원문에 대한 번역문은 대화문과 지시문의 분리 유무, 대화문의 분리 유무에 따라 네 가지 형식의 구성으로 나타난다. 우선, [TT2]와 [TT3]은 대화문과 지시문을 별개의 문장으로 분리하였다. [TT2]는 지시문이 대화문 사이에 삽입된 원문의 어순을 그대로 따랐고, [TT3]은 대화문을 하나의 따옴표 안에 이어 붙인 다음 지시문을 뒤로 이동한 것이 차이점이다. [TT2]는 지시문이 대화문을 앞뒤로 분리한 원문의 표층 구조에 초점을 맞춘 번역이고, [TT3]은 대화문이 원래 하나의 문장인 원문의 기저 구조에 초점을 맞춘 번역이다. 반면, [TT1]과 [TT4]는 직접 인용의 방식을 사용하여 대화문이 지시문에 안긴 형식의 한 문장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원문이 통사적으로 하나의 문장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번역이다. 둘의 차이는 [TT1]이 대화문을 표층 구조대로 두 문장으로 분리한 데에 반해, [TT4]는 대화문을 기저 구조대로 한 문장으로 합쳤다는 점이다.

지시문이 하나의 대화문 중간에 삽입되는 구조는 국어에 없는 문장 구조이다. 따라서 국어의 문장 구조에 맞게 번역하려면 원문의 구조를 변형시킬 수밖에 없다.[11] 그렇다면 [TT3]이나 [TT4]에서처럼 대화문을 한 문장으로 합쳐야 하는데, [TT3]과 같이 대화문을 한 문장으로 합치고 지시문을 대화문 뒤에 놓게 되면 원문에서 지시문을 굳이 “in our very next issue.” 앞에 둔 의도를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지시문의 위치에 대해 이영옥(2002: 70)은 지시문의 주어가 고유명사냐 대명사냐, 또 지시문의 동사가 발화자의 음성이나 태도 등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동사냐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동사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으나, 어순으로 나타나는 문장 구조는 이러한 차이뿐 아니라 의도성(intentionality) 및 정보성(informativity)과도 관련된다. 즉, 위 예문에서는 지시문의 ‘tossing the magazine on the table’이라는 행위가 화자의 발화와 동시에 일어남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시문을 대화문 중간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TT1]과 [TT4]에서는 지시문에 각각 ‘하면서’, ‘-라고 말하면서’를 넣어 대화문을 지시문 안에 직접 인용절로 내포함으로써 이러한 동시 상황을 부각시켰다.

11) 김정우(1994: 56) 역시 [TT2]와 같이 대화문이 분리된 문장은 비문이라고 하였다.

www.kci.go.kr

라. 지시문(:) “대화문,” 지시문.

원문에서 지시문 중간에 대화문이 삽입되었을 때는 대화문이 지시문에 안긴 구조가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경우에는 앞의 유형들과는 달리 대화문과 지시문을 독립적인 문장으로 분리하지 않고, 직접 인용의 방식을 사용하여 대화문이 지시문에 안긴 구조의 한 문장으로 번역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8)

a. [ST] (지시문 전략) Dimly I heard some one murmur “Blessed are the deat that the rain falls on,” and then the owl-eyed man said “Amen to that,” in a brave voice. (166)

[TT1] (지시문 전략) 누군가가 “죽은 자에게 비가 내리니 복이 있도다!”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고, 이어서 올빼미 눈의 사내가 큰 목소리로 “그렇게 되리라, 아멘!” 하고 말했다. (270)

[TT2] (지시문 전략) 나는 누군가가 “비가 내리니 망자에게 복 있을지어다”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올빼미 안경이 우렁찬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화답했다. (217)

[TT3] (지시문 전략) 누군가가 “비가 내리니 죽은 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나지막하게 중얼거리자 올빼미 눈이 우렁찬 목소리로 “아멘.” 하고 화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245)

[TT4] (지시문 전략) 누군가 “죽은 자에게 비가 내리는 복이 있도다.”라고 나직이 중얼거리자 올빼미 논이 힘찬 목소리로 “아멘!” 하고 맞장구를 쳤다. (234)

b. [ST] (지시문 전략) at intervals she appeared suddenly at his side like an angry diamond, and hissed(:)[12] “You promised!” into his ear. (52)

[TT1] (지시문 전략) 이따금 성난 다이아몬드처럼 남편 옆에 불쑥 나타나 남편의 귀에다 대고 “안 그러기로 약속했잖아요!” 하고 씩씩거렸던 것이다. (85)

[TT2] (지시문 전략) 말이 끊어진 틈을 타 갑자기 나타난 그녀는 최대한 분노를 억누르며 남편의 귓전에 “안 그러기로 했잖아!” 하고 소리쳤다. (69)

12) 케임브리지출판부(1991) 판본에는 콜론이 생략되었다.

www.kci.go.kr

[TT3] (지시문 전략) 말이 끊어진 틈을 타서 갑자기 각이 진 다이아몬드처럼 성마르게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귀에 대고 “당신 약속했잖아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 (81)

[TT4] (지시문 전략) 말이 끊긴 틈에 날카롭고 성마른 소리로 “아까, 약속했잖아요.”라며 남편에게 냅다 소리를 질렀다. (68)

위 예의 원문은 대화문이 지시문 안에 직접 인용절로 안긴 하나의 문장이다. 번역문에서도 원문의 형식을 따라 지시문이 대화문을 직접 인용절로 안은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원문이 지시문 중간에 대화문을 삽입한 구조임에도 번역문에서 지시문과 대화문의 문장을 분리한 예도 있다.

(9)

[ST] (지시문 전략) If he left the room for a minute she’d look around uneasily, and say(:)[13] “Where’s Tom gone?” and wear the most abstracted expression until she saw him coming in the door. (후략) (75)

[TT1] (지시문 전략) 남편이 잠시라도 방을 비우면 데이지는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면서 “톰은 어디 갔지?” 하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문으로 들어오는 게 보일 때까지 멍한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122)

[TT2] (지시문 전략) 남편이 잠깐이라도 방을 비우면 데이지는 안절부절못하며 찾으러 돌아다녀요. “톰 어디 간 거야?” 그러고는 톰이 나타날 때까지 넋 나간 듯이 앉아 있는 거예요. (98)

[TT3] (지시문 전략) 그가 잠깐만이라도 방을 나가도 불안하게 방 안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톰이 어디 간 거야?” 그러곤 문에 그가 나타날 때까지 얼빠진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4)

[TT4] (지시문 전략) 남편이 잠시만 방을 나가도 안절부절못하면서 사방을 살피는 거예요.

“톰이 어디 갔지?”

남편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때까지 계속 불안해했어요. (99)

13) 케임브리지출판부(1991) 판본에는 콜론이 생략되었다.

www.kci.go.kr

위 예에서는 [TT1]만 앞에 놓인 지시문과 대화문을 한 문장으로 번역하였을 뿐, 나머지 번역문들은 모두 지시문과 대화문을 서로 다른 문장으로 분리하였다.

(8)과 (9)의 차이는 대화문 뒤에 오는 지시문의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한다. (8)은 대화문 뒤에 지시문의 부사구가 오기 때문에 대화문이 지시문에 안긴 구조가 확연하게 드러나지만, (9)는 대화문 뒤에 지시문의 접속절이 오기 때문에 분리적인 특성이 강조된다. 그래서 (8)은 지시문과 대화문을 한 문장으로 통합하여 번역한 반면, (9)는 지시문과 대화문을 서로 다른 문장으로 분리하였다.

2) 대화문과 지시문의 문장 통합

2.2에서 본 원문의 대화문 단락 구성 유형 가운데 ④[“대화문.” 지시문. (“대화문.” 또는 지시문.)]와 ⑦[(지시문.) 지시문. “대화문.”]은 대화문과 지시문이 서로 다른 문장으로 분리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원문에서 대화문과 지시문이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도 번역문에서는 대화문과 지시문을 서로 다른 문장으로 분리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다면 원문에서 대화문과 지시문이 서로 다른 문장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번역문에서도 당연히 그러한 구조를 따를 것으로 기대되는데, ④의 유형은 항상 대화문과 지시문을 다른 문장으로 분리하였지만, ⑦의 유형은 둘을 한 문장으로 통합한 예가 한 곳 있었다.

(10)

[ST] (지시문 전략) She dressed in white, and had a little white roadster, and all day long the telephone rang in her house and excited young officers from Camp Taylor demanded the privilege of monopolizing her that night. “Anyways, for an hour!” (73)

[TT1] (지시문 전략) 데이지는 하얀 옷을 입었고, 자그마한 하얀색 로드스터를 갖고 있었죠. 데이지네 집에서는 온종일 전화벨이 울렸고, 테일러 기지에 근무하는 젊은 장교들은 잔뜩 흥분해 가지고 “어쨌든 딱 한 시간만!” 하면서 그날 밤 데이지를 독점하려고 야단들이었죠. (118)

[TT2] (지시문 전략) 데이지는 하얀 옷을 차려입고 흰색 로드스터를 몰고 다녔죠. 온종일 집에 그 애 찾는 전화벨이 울려대고 흥분한 캠프 테

www.kci.go.kr

일러의 젊은 장교들이 그녀를 독차지하려고 “제발 한 시간만 내주세요!” 애걸하곤 했죠. (95)

[TT3] (지시문 전략) 그녀는 흰옷을 차려입고 흰색의 작은 로드스터를 몰고 다녔어요. 데이지의 집에는 하루 종일 전화벨이 울려 댔죠. 캠프 테일러에서 온 흥분한 젊은 장교들이 그날 밤 ‘단 한 시간이라도’ 그녀를 독차지하려고 야단법석을 떨었거든요. (111)

[TT4] (지시문 전략)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흰색의 로드스터를 몰고 다녔어요. 데이지의 집에서는 하루 종일 전화벨이 울렸죠. 테일러 기지의 젊은 장교들이 한 시간만이라도 만나 달라고 데이지한테 애걸하곤 했죠. (96)

위 예에서는 대화문 “Anyways, for an hour!”를 독립된 하나의 문장으로 번역한 번역문이 없다. [TT1]과 [TT2]는 지시문에 안긴 직접 인용절로, [TT4]는 간접 인용절로 처리하였고 [TT3]은 대화문의 내용만을 지시문에 포함시켰다. 물론, [TT1]을 제외한 다른 번역문들이 원문으로 삼은 판본에서는 지시문에 온점이 아닌 반점이 찍혀 있긴 하지만, 반점으로 연결되었을 때도 이들 번역문이 항상 지시문과 대화문을 서로 다른 문장으로 분리하였음을 고려하면 위 예가 예외적인 것임은 분명하다.

위 예에서 지시문의 동사 ‘demanded’의 목적어는 ‘the privilege of monopolizing her’이다. 즉, 젊은 장교들이 데이지에게 그녀를 독차지할 수 있는 특권을 요구한 것이며, 그렇게 요구하면서 했던 말이 “Anyways, for an hour!”이다. 위 예를 문장 그대로 ‘캠프 테일러의 흥분한 젊은 장교들이 그날 밤 그녀를 독차지할 수 있는 특권을 요구했죠. “어쨌든 딱 한 시간만!”’으로 옮기면 지시문과 대화문의 연결이 어색하다. 그래서 지시문과 대화문의 결속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TT1]은 대화문 뒤에 ‘하면서’를 삽입하여 대화문을 지시문에 내포시키고, [TT2]는 ‘하면서’를 생략한 채로 지시문에 내포시켰다. 원문에서 이 대화문을 지시문 뒤에 넣은 이유는 강조 효과를 위해서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TT4]는 [TT1]과 [TT2]에 비해 원문이 “Anyways, for an hour!”를 강조하고자 한 의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TT3]은 ‘단 한 시간이라도’에 작은따옴표를 사용함으로써, 직접 인용절을 사용하지 않고도 강조 효과를 표시하였다.

www.kci.go.kr

3.2의 내용을 정리하면, 원문에서 대화문과 지시문이 반점이나 콜론으로 연결될 경우, 대화문이 지시문 동사의 목적어에 해당하므로 대화문이 지시문에 안긴 구조의 한 문장이지만, 번역문에서는 대부분 대화문과 지시문을 서로 다른 문장으로 분리하였다. <지시문(:) “대화문,” 지시문.>과 같이 원문에서 대화문이 지시문에 안긴 구조가 시각적으로 두드러질 때는 번역문에서도 대화문이 지시문에 안긴 구조의 한 문장으로 번역하는 경향이 있지만, 원문이 <“대화문,” 지시문.>, <지시문: “대화문.”>의 구조일 때는 번역문에서 항상 대화문과 지시문을 서로 다른 문장으로 분리하였다. 김형철(2003: 267-268)은 ‘“대화문.”라고 말했다.’의 구조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국어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하였으나, 소설 번역에서만큼은 대화문을 지시문에서 별도의 문장으로 분리해 내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이는 문장을 간결하게 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 우리 소설의 문장 구조를 따름으로써 용인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3.3. 대화문과 지시문의 위치 변화

대화문 단락의 번역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대화문과 지시문의 순서이다. 앞 절에서도 보았듯이, 원문에서 지시문이 대화문의 뒤나 앞에 놓였을 때는 번역문에서도 대체로 원문의 순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문에서 지시문이 대화문 중간에 놓인 경우에는, 번역문에서 대화문을 하나의 따옴표 안에 넣고 지시문을 대화문의 뒤나 앞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11)

[ST] “Jordan’s going to play in the tournament tomorrow,” explained Daisy, “over at Westchester.” (23)

[TT1] “조던은 내일 시합에 나가요. 웨스트체스터에서.” 데이지가 설명했다. (37-38)

[TT2] “조던은 내일 시합이 있대.” 데이지가 말했다. “웨스트체스터에서.” (31)

[TT3] “조던은 내일 경기가 있대요. 웨스트체스터에서 말이에요.” 데이지가 설명했다. (39)

위의 예를 보면, 번역문들 간에 지시문의 위치가 다르다. 원문은 원래 한 문장

www.kci.go.kr

이었던 대화문 중간에 지시문이 삽입된 형식인데, [TT2]만 원문의 순서를 유지하였고, [TT1]과 [TT3]은 하나의 따옴표 안에 대화문을 이어 붙이고, 지시문을 뒤로 보내었다.

번역문에서 지시문을 후치시키는 변형은, 원문에서 지시문의 앞과 뒤에 놓인 두 대화문의 기저 구조가 한 문장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두 문장일 때에도 나타난다.

(12)

[ST] "I've just heard the most amazing thing," she whispered. "How long were we in there?" (53)

[TT1] "방금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녀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저 방에 얼마나 오래 있었죠?" (86)

[TT2]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저기 얼마나 들어가 있었나요?" (70)

[TT3] "방금 참으로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저기서 얼마나 오래 있었나요?" 그녀가 속삭였다. (82)

위 예의 원문에서도 지시문이 대화문 중간에 끼어 있긴 하지만, 앞뒤로 놓인 두 대화문이 앞의 (11)과는 달리 통사적으로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별개의 문장이다.[14] [TT1]과 [TT2]는 원문의 순서를 유지하였으나, [TT3]은 여기서도 두 대화문을 하나의 따옴표 안에 넣고, 지시문을 뒤로 보내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TT1]의 번역이다. 앞의 (11)과 비교하면, [TT1]은 원문에 쓰인 대화문의 기저 구조에 따라, 대화문이 원래 하나의 문장일 때는 지시문을 후치시키고, 대화문이 원래부터 별개의 두 문장일 때는 원문의 순서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시문을 사이에 두고 앞뒤로 분리된 대화문의 기저 구조가 한 문장이었다고 해서 [TT1]이 지시문을 항상 후치 이동한 것은 아니지

14) (11)의 원문은 중간에 놓인 지시문에 반점이 찍혀 있고, 뒤에 오는 대화문도 소문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앞과 뒤에 놓인 두 대화문이 통사적으로 하나의 문장에 해당하지만, (12)의 원문은 중간에 놓인 지시문에 온점이 찍혀 있고, 뒤에 오는 대화문도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시작하므로 뒤에 오는 대화문은 앞의 대화문과는 독립적인 하나의 문장이 된다.

www.kci.go.kr

만,[15] 앞뒤로 놓인 대화문이 원래 별개의 두 문장일 때에는 원문의 순서를 따랐다.[16]

한편, [TT3]도 지시문을 항상 대화문 뒤로 보낸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 (13)은 지시문을 후치한 예들이고, (14)는 원문의 순서를 따른 예들이다.

(13)

a. [ST] "I'm going to have the McKees come up," she announced as we rose in the elevator. "And, of course, I got to call up my sister, too." (31)

[TT3] "맥키 부부를 부를 거예요. 물론 내 동생한테도 전화를 걸고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녀가 말했다. (51)

b. [ST] "I hope I never will," she answered. "I hate careless people. That's why I like you." (58)

[TT3]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야지요. 난 조심성 없는 사람을 끔찍이도 싫어하거든요.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도 거기 있지요." 그녀가 대답했다. (90-91)

(14)

a. [ST] "Yes, but listen," said Myrtle Wilson, nodding her head up and down, "at least you didn't marry him." (36)

[TT3] "맞아. 하지만 내 말 좀 들어 봐." 머틀이 고개를 아래위로 끄덕이면서 말했다. "적어도 당신은 그와 결혼하지 않았잖아." (58)

b. [ST] "What!" I exclaimed. "Oh, I beg your pardon." (48)

[TT3] "뭐라고요!" 나는 소리를 질렀다. "아, 실례했습니다." (76)

(13)과 (14)의 번역문을 비교해 보면, (13)의 지시문 'she announced as we rose in the elevator.'와 'she answered.'는 그 앞에 위치한 대화문뿐 아니라 뒤에 위치한 대화문에도 해당하는 설명이지만, (14)의 지시문 'said Myrtle Wilson, nodding her head up and down,'과 'I exclaimed.'는 앞의 대화문에만 해당하는

15) 예문 (6) 참조.

16) [TT1]은 지시문의 앞뒤로 놓인 두 대화문이 원래 한 문장이 아니라 별개의 문장일 때는 예문 (15)와 같이 대화문과 지시문을 단락 구분하되 지시문을 앞으로 이동한 경우도 있었지만,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 원문과 같이 두 대화문과 지시문을 한 단락으로 처리하였고, 이때에는 항상 원문의 순서를 유지하였다.

www.kci.go.kr

설명이다. [TT3]은 지시문의 문장부호가 반점이든 온점이든 관계없이, 즉 원문에서 지시문의 앞과 뒤에 놓인 대화문이 원래 한 문장이건 서로 독립적인 두 문장이건 관계없이, 지시문의 내용이 뒤의 대화문까지도 포괄하여 설명하는 것이라면 뒤의 대화문을 지시문 앞으로 이동하여 두 대화문을 하나의 따옴표 안에 넣었고, 지시문의 내용이 앞에 놓인 대화문에 대한 설명으로 한정된다면 원문의 순서를 유지하였다. 문장 순서의 이러한 조정은 문장 간의 의미 관계에 따른 결속구조를 강화할 뿐 아니라, 대화문과 지시문의 의미 관계를 독자가 좀 더 쉽고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가독성을 높이는 효과도 가진다.

지시문을 대화문 앞으로 이동하여 번역한 예도 있다. 이때는 항상 지시문과 대화문의 단락이 구분된다.

(15)

[ST] At least **a dozen men**, some of them little better off than he was, explained to him that wheel and car were no longer joined by any physical bond.

"Back out," **he** suggested after a moment. "Put her in reverse." (56)

[TT1] 적어도 **열두어 명**—그들 중에는 그보다 상태가 나을 게 없는 사람도 몇 명 있었다—이 바퀴와 차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해 주었다.

잠시 후에 **그가** 방법을 제시했다.

"차를 뒤로 빼야겠어요. 후진시키는 거죠." (90)

위 예에서는 [TT1]이 대화문 중간에 있는 지시문을 대화문 앞으로 보내고 대화문과 단락을 구분하여 하나의 독립적인 단락으로 삼았다. 위 예에서 원문의 순서대로 "잠시 후에 그가 방법을 제시했다."를 "차를 뒤로 빼야겠어요." 뒤에 놓게 되면, "차를 뒤로 빼야겠어요."라고 말한 뒤 잠시 후에 그가 방법을 제시했다는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문맥에서는 잠시 후에 그가 제시한 방법이 차를 뒤로 빼서 후진하는 것이므로 지시문을 대화문 앞으로 보낸 것이다. 그리고 원문에서 각각 독립적인 문장으로 이루어진 대화문과 지시문을 같은 단락 안에 둘 때는 대화문이 지시문 앞에 오며, 지시문이 대화문 앞에 오는 일은 거의 없

www.kci.go.kr

기 때문에, 위 [TT1]에서는 지시문을 대화문의 앞으로 이동하면서 대화문과 단락을 구분한 것이다.

다음 예에서도 대화문과 지시문을 서로 다른 단락으로 분리하면서 지시문을 앞으로 이동하였는데, 위의 예와는 달리 지시문을 독립된 하나의 단락으로 삼지 않고, 앞의 지시문 단락에 이어 붙였다.

(16)

a. [ST]

He saw me looking with admiration at his car.

"It's pretty, isn't it, old sport!" **He** jumped off to give me a better view. "Haven't you ever seen it before?" (63)

[TT1]

그는 내가 자동차를 감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내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차에서 펄쩍 뛰어내렸다.

"멋지지 않아요? 이런 차를 전에도 본 적이 있소?" (102)

b. [ST]

And then came that disconcerting ride. We hadn't reached West Egg Village before **Gatsby** began leaving his elegant sentences unfinished and slapping himself indecisively on the knee of his caramel-colored suit.

"Look here, old sport," **he** broke out surprisingly, "what's your opinion of me anyhow?" (63)

[TT1]

그러던 차에 난데없는 드라이브를 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웨스트에그 마을에 도착하기도 전에 **개츠비는** 우아한 말투를 버리고 캐러멜 색깔의 바지 무릎을 어설프게 탁탁 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불쑥 물었다.

"이봐요 형씨,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102-103)

위 예의 [TT1]은 대화문과 지시문의 단락을 구분하되, 원문에서 두 대화문 중간에 놓인 지시문을 별도의 한 단락으로 처리하지 않고 앞의 지시문 단락에 이어 붙였다.

(15)와 (16)의 원문을 비교하면, (15)는 앞 단락의 지시문과 대화문 단락 중간에 놓인 지시문의 주체가 다르지만, (16)은 앞 단락의 지시문과 대화문 단락에 삽입된 지시문의 주체가 동일하다. 그래서 (15)는 대화문 단락의 지시문을

www.kci.go.kr

앞으로 이동하면서도 앞의 지시문 단락에 넣지 않고 독립적인 한 단락으로 삼은 반면, (16)은 대화문 단락의 지시문을 앞의 지시문 단락에 이어 붙인 것이다. 대화문과 지시문의 이러한 문장 순서 조정과 단락의 재구성은 텍스트의 결속구조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요약하면, 원문에서 두 대화문 중간에 지시문이 놓여 있을 때 대화문과 지시문의 순서를 번역하는 방법은 원문의 문장 순서를 따르는 방법과 지시문을 대화문 뒤로 후치 이동하는 방법, 지시문을 대화문 앞으로 전치 이동하는 방법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단, 지시문이 대화문 뒤로 후치 이동할 때는 지시문의 내용이 두 대화문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일 때에 한한다. 그리고 지시문이 대화문 앞으로 전치 이동할 때는 지시문과 대화문이 서로 다른 단락으로 분리되며, 지시문의 주체가 앞 단락 지시문의 주체와 일치할 때는 지시문이 앞 단락에 붙기도 한다. 문장의 순서를 이렇게 조정함으로써, 텍스트의 결속구조를 더욱 강화하고, 문장 간의 의미 관계를 독자에게 좀 더 명확하고 쉽게 전달하여 가독성과 용인성 또한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4. 지시문의 생략

대화문 중간에 삽입된 지시문이 번역문에서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17)
[ST] “In any case,” he said, “it was just personal.” (145)
[TT1] “어쨌거나 그건 개인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았어요.” (지시문 생략) (236)
[TT2] “하지만 어차피,” 그가 말을 이었다. “개인적인 문제지.” (190)
[TT3] “어쨌든 말입니다. 그건 그저 개인적인 문제였을 뿐이지요.” 그가 말했다. (214)

위 예의 원문은 통사적으로 하나의 문장인 대화문 중간에 지시문 ‘he said,’가 삽입되어 한 문장이 세 조각으로 나뉜 형식이다. [TT2]는 원문의 순서를 유지하였고, [TT3]은 대화문을 하나의 따옴표 안에 넣고 지시문을 후치시켰지만, [TT1]은 대화문을 한 문장으로 붙인 다음 지시문을 삭제하였다. 지금까지 살펴

www.kci.go.kr

본 바에 따르면, 대화문 단락의 번역 방법에 있어서 [TT2]와 [TT3]은 비교적 일관된 방법을 유지하는 데에 반해, [TT1]은 상대적으로 그 번역 방법이 다양하다. 지시문이 삭제되는 방법도 [TT1]의 특징이다.

위 예의 [TT1]에서 지시문을 생략한 이유는 해당 지시문이 잉여적인 정보이기 때문일 것이다[17]. 'he said'는 'said'가 없어도 따옴표 안에 대화문이 있으므로 '말한' 것임을 알 수 있고, 해당 문맥을 보면 대화문 바로 윗줄에 'Suddenly he came out with a curious remark.'가 지시문으로 놓여 있어 'he'를 생략해도 '그'가 한 말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TT1]에서는 'he said'를 잉여적인 정보로 간주하고 생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욱동(2013: 157-58)은 다른 번역자들이 위와 같은 지시문을 생략하여 번역한 것을 두고, 자신은 원문 그대로 살려 번역하였고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기술은 마치 위와 같은 지시문의 생략이 원문에 충실하지 못한 번역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보그란데&드레슬러(1981)에 따르면, 생략은 텍스트에서 결속구조를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생략은 간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공헌하는 결속구조 장치에 해당한다(김태옥・이현호 옮김 1995: 103). 문제는 생략된 요소의 복원 가능성 여부이다.

(18)
[ST]
"You're a rotten driver," I protested. "Either you ought to be more careful, or you oughtn't to dirve at all."
"I'm careful."
"No, you're not."
"Well, other people are," she said lightly.
"What's that got to do with it?"
"They'll keep out of my way," she insisted. "It takes two to make an accident."
"Suppose you met somebody just as careless as yourself."

17) 이영옥(2002: 70)은 "인용도입부의 동사 자체가 상대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는 인용부의 중간에 삽입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www.kci.go.kr

"I hope I never will," she answered. "I hate careless people. That's why I like you."(59)
[TT1]
"운전 솜씨가 고약하군요." 내가 나무랐다. "좀 더 조심하든가, 아니면 아예 운전을 하지 말아야겠어요."
"조심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남들이 조심하겠죠." 그녀가 가볍게 말했다.
"그게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죠?"
"그들이 길을 비켜줘야 했어요. (지시문 생략) 사고는 양쪽이 다 잘못해야 나는 법이에요."
"당신만큼 조심성 없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시문 생략) 난 조심성 없는 사람이 싫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95)

위 예문에서 'she answered'는 굳이 쓰지 않아도 그녀가 상대방의 말에 대답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으므로 번역문에서 '그녀가 대답했다'를 생략하였다. 그에 반해 'she said lightly'는 'lightly'가 붙어서 구체적인 의미를 덧붙여 주고, 'I protested.'의 'protested'도 단순히 '말하다'가 아니라 '이의를 제기하다'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추가되어 있는 발화 동사이므로 이들에 대한 번역은 생략하지 않았다. 그런데 'she insisted.'의 'insisted'는 '고집하다, 우기다' 등의 추가적인 의미가 덧붙은 발화 동사인데도 번역을 생략하여, 지시문 생략의 기준에 다소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물론, 앞뒤에 놓인 대화문을 보고 화자가 자기 본위로 억지를 부리고 있음을 짐작할 수는 있다.

하지만 다음 예문은 대화문을 읽어도 생략된 지시문의 의미를 복원해 내기 어렵다.

(19)
[ST] "Where've you been?" he demanded eagerly. "Daisy's furious because you haven't called up." (73)
[TT1] "요즘 어디 있었나? (지시문 생략) 자네한테서 연락이 없다고 데이지가 잔뜩 화가 났어." (117)
[TT2]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톰이 반가워하며 물었다. "네가 전화

www.kci.go.kr

안 한다고 데이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94)
[TT3] "도대체 그동안 어디 있었나? 자네한테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데이지가 몹시 화내고 있어." 그가 반가워하며 물었다. (110)

위 예문의 [TT1]에서는 지시문 'he demanded eagerly.'의 번역이 생략되었는데, '요즘 어디 있었나?'라는 대화문을 읽어도 화자가 'eagerly'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더구나 '자네한테서 연락이 없다고 데이지가 잔뜩 화가 났어.'라는 문장은 화자가 청자에게 그동안 연락 없었음에 대해 힐책하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실제 발화의 상황에서는 억양과 표정을 더하여 반가움을 표현할 수 있지만 글에서는 그러한 상황적 요인을 어휘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생략 역시 텍스트에서 결속구조를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화용적 측면에서, 생략은 복원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생략은 명료성을 다소 잃더라도 표층 텍스트를 짧고 간결하게 만듦으로써 경제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결속구조 장치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층 텍스트에서 둘 이상의 절이 구성 성분을 공유할 때 생략이 일어나며, 이때 생략된 요소는 복원이 가능해야 한다. 즉, 지시문을 생략하고자 한다면 해당 지시문이 전달하고자 한 의미가 대화문 혹은 다른 지시문과의 의미 관계 속에서 충분히 드러나야 한다. 이러한 생략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 생략을 하면 의미의 불명확성을 야기하게 되므로, 지시문을 생략할 때는 복원 가능성이라는 생략의 조건을 준수해야만 명료성도 잃지 않음과 동시에 경제성을 높임으로써 결속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

4. 직접 인용 구문 단락의 구성 방안

2.2에서 영문 소설의 직접 인용문 단락 구성을 아래의 일곱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① ["대화문."]
② [<"대화문," 지시문.> ("대화문." 또는 지시문.)]

www.kci.go.kr

③ [<“대화문,” 지시문, “대화문.”> (“대화문.” 또는 지시문.)]
④ [“대화문.” 지시문. (“대화문.” 또는 지시문.)]
⑤ [(“대화문.” 또는 지시문.) <지시문: “대화문.”>]
⑥ [(지시문.) <지시문(:) “대화문,” 지시문.>]
⑦ [(지시문.) 지시문. “대화문.”]

위에서 유형①은 하나의 단락이 대화문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변화를 꾀할 것도 없이 원문의 형식대로 번역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형②~⑦은 우리의 담화 관습, 규범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역 방법을 취하게 된다. 3장에서 분석한 대화문 단락의 번역 방법을 위의 유형에 따라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ST] “대화문.”
번역방법1. “대화문.”

② [ST] “대화문1,” 지시문1. (“대화문2.” 또는 지시문2.)
②-가. [ST] “대화문1,” 지시문1. “대화문2.”
번역방법1. “대화문1.” 지시문1. “대화문2.” - 원문의 단락 구성 유지
번역방법2. “대화문1.”/지시문1./“대화문2.” - 대화문과 지시문 단락 분리
번역방법3. “대화문1. 대화문2.” 지시문1.
- 두 대화문을 한 따옴표로, 지시문 후치 이동
번역방법4. “대화문1. 대화문2.”/지시문1.
- 두 대화문을 한 따옴표로, 지시문 후치 이동, 단락 분리
번역방법5. 지시문1./“대화문1. 대화문2.”
- 두 대화문을 한 따옴표로, 지시문 전치 이동, 단락 분리
번역방법6. “대화문1. 대화문2.” - 두 대화문을 한 따옴표로, 지시문1 생략
번역방법7. “대화문1”을 직접 인용절로 지시문1에 내포. “대화문2.”
번역방법8. “대화문1”을 직접 인용절로 지시문1에 내포./“대화문2.”

원문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1번과 같이 원문의 형식을 따르고, 독자에게 익

www.kci.go.kr

숙한 우리의 담화 관습, 규범을 따르고자 한다면 2번과 같이 대화문과 지시문을 단락 구분한다. 상황에 따라 지시문과 대화문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 지시문1을 대화문2의 뒤로 보내려면 지시문의 내용이 두 대화문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 판단이 모호한 경우도 있으므로, 원문에서 지시문의 앞뒤에 놓인 두 대화문이 각각 독립된 별개의 문장이라면 원문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간편한 방법이다. 지시문1을 대화문1의 앞으로 보낼 때는 단락을 나눈다. 이때 그 앞 단락의 지시문의 주체와 지시문1의 주체가 동일하다면 지시문1을 앞 단락에 붙일 수도 있다. 지시문1을 생략할 수도 있는데, 지시문을 생략하려면 반드시 지시문이 잉여적인 정보여야 한다. 대화문1에 반점이 찍혀 있고 지시문1이 소문자로 시작하여 둘이 통사적으로 하나의 문장이라는 점에 착안한다면 대화문1을 직접 인용절의 형식으로 지시문1에 내포함으로써 대화문1이 지시문1에 안긴 구조의 한 문장으로 번역하는 방법도 있다.

②-나. [ST] “대화문1,” 지시문1. (지시문2.)

번역방법1. “대화문1.” 지시문1. (지시문2.) - 원문의 단락 구성 유지
번역방법2. “대화문1.”/지시문1. (지시문2.) - 대화문과 지시문 단락 분리
번역방법3. 지시문1./“대화문1.”/(지시문2.) - 지시문1을 전치 이동, 단락 분리
번역방법4. “대화문1.” (지시문2.) - 지시문1 생략
번역방법5. “대화문1.”/(지시문2.) - 지시문1 생략, 단락 분리
번역방법6. “대화문1.”을 직접 인용절로 지시문1에 내포. (지시문2.)

②-가)의 번역방법과 동일하나, 원문에 대화문이 하나밖에 없으므로 ②-가)의 번역방법 중에서 두 대화문을 하나의 따옴표 안에 함께 넣고 지시문을 후치 이동하는 방법이 빠진다.

③ [ST] “대화문1,” 지시문, “대화문2.”

번역방법1. “대화문1.” 지시문. “대화문2.” - 원문의 단락 구성 유지
번역방법2. “대화문1.”/지시문./“대화문2.” - 대화문과 지시문 단락 분리
번역방법3. “대화문.” 지시문. - 대화문을 한 문장으로 통합, 지시문 후치 이동
번역방법4. “대화문.”/ 지시문.

www.kci.go.kr

- 대화문을 한 문장으로 통합, 지시문 후치, 단락 분리

번역방법5. 지시문./“대화문.” - 대화문 통합, 지시문 전치 이동, 단락 분리

번역방법6. “대화문.” - 대화문 통합, 지시문 생략

번역방법7. “대화문1. 대화문2.” 지시문.

- 두 대화문을 한 따옴표로, 지시문 후치 이동

번역방법8. “대화문1. 대화문2.”/지시문.

- 두 대화문을 한 따옴표로, 지시문 후치 이동, 단락 분리

번역방법9. 지시문./“대화문1. 대화문2.”

- 두 대화문을 한 따옴표로, 지시문 전치 이동, 단락 분리

번역방법10. “대화문1. 대화문2.” - 두 대화문을 한 따옴표로, 지시문 생략

번역방법11. “대화문1. 대화문2.”를 직접 인용절로 지시문에 내포

번역방법12. 대화문을 한 문장으로 통합 후 직접 인용절로 지시문에 내포

③유형은 번역 방법이 가장 다양한 유형이다. ②유형에서는 원문의 대화문2가 독립적인 하나의 문장이지만, ③유형에서는 원문의 대화문1과 대화문2가 기저구조에서 하나의 문장이므로, 둘을 한 문장으로 통합하는 번역 방법이 추가된다. 다만, 대화문을 한 문장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지시문이 대화문1뿐 아니라 대화문2에도 해당하는 설명이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④ “대화문1.” 지시문1. (“대화문2.” 또는 지시문2.)

④-가. [ST] “대화문1.” 지시문1. “대화문2.”

번역방법1. “대화문1.” 지시문1. “대화문2.” - 원문의 단락 구성 유지

번역방법2. “대화문1.”/지시문1./“대화문2.” - 대화문과 지시문 단락 분리

번역방법3. “대화문1. 대화문2.” 지시문1.

- 두 대화문을 한 따옴표로, 지시문 후치 이동

번역방법4. “대화문1. 대화문2.”/지시문1.

- 두 대화문을 한 따옴표로, 지시문 후치 이동, 단락 분리

번역방법5. 지시문1./“대화문1. 대화문2.”

- 두 대화문을 한 따옴표로, 지시문 전치 이동, 단락 분리

www.kci.go.kr

②나 ③유형과 달리, ④유형에서는 원문의 지시문1이 하나의 독립적인 문장이므로 대화문을 직접 인용의 형식으로 지시문에 내포하지 않는다. 또, 원문에서 지시문1이 하나의 독립적인 문장으로 쓰일 때는 단순히 '주어+발화동사'의 구성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추가되므로 지시문1을 생략하지도 않는다.

④-나. [ST] "대화문1." 지시문1. (지시문2.)

번역방법1. "대화문1." 지시문1. (지시문2.) - 원문의 단락 구성 유지

번역방법2. "대화문1."/지시문1. (지시문2.) - 대화문과 지시문 단락 분리

④-가)와 달리 원문에 대화문이 하나뿐이므로, ④-가)의 번역방법 중에서 두 대화문을 하나의 따옴표 안에 함께 넣고 지시문을 이동하는 방법이 빠진다.

⑤ [ST] ("대화문1." 또는 지시문1.) 지시문2: "대화문2."

번역방법1. ("대화문1." 또는 지시문1.) 지시문2. "대화문2."
- 원문의 단락 구성 유지

번역방법2. ("대화문1." 또는 지시문1.)/지시문2./"대화문2."
- 대화문과 지시문 단락 분리

영어에서는 콜론이 인용절을 도입하는 기능을 하지만, 국어에서는 콜론에 그러한 기능이 없다. 김도훈(2011: 37-39)은 지시문과 대화문을 문장 분리하되, 지시문에 '다음과 같이' 혹은 '이렇게'를 삽입하여 인용문이 나올 것임을 암시하거나, 대화문을 간접 인용절로 옮기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의 분석 대상 텍스트에서는 '다음과 같이'나 '이렇게'와 같은 인용도입구 없이 지시문과 대화문을 분리하기도 하였으며, 대화문을 간접 인용절로 옮긴 예는 없었다. 대화문을 간접 인용절로 표현하면 소설에서 대화문이 가지는 현장성의 특성이 퇴색되기 때문이다.

⑥ [ST] (지시문1.) 지시문2(:) "대화문1," 지시문3.

번역방법1. (지시문1.) 지시문2. "대화문1." 지시문3. - 원문의 단락 구성 유지

www.kci.go.kr

번역방법2. (지시문1.) 지시문2./“대화문1.”/지시문3.
- 대화문과 지시문 단락 분리
번역방법3. 대화문을 직접 인용절로 지시문에 내포

이 유형은 지시문2와 지시문3의 문법 관계에 따라 번역 방법이 달라진다. 1번이나 2번 방법처럼 대화문1을 별도의 문장으로 독립시키고, 지시문2와 지시문3도 문장을 분리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지시문3이 절(clause)인 경우이다. 지시문3이 구(phrase)일 때는 지시문2와 지시문3을 문장 분리하기 어려우므로 대화문을 직접 인용절로 지시문 안에 통합하였다. 물론, 지시문3을 대화문 앞으로 이동하여 대화문만 분리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지시문 단락에 대화문을 독립적인 문장으로 연결하지는 않으므로 대화문을 별도의 문장으로 분리하지 않고 지시문에 내포한다.

⑦ [ST] (지시문.) 지시문. “대화문.”
번역방법1. (지시문.) 지시문. “대화문.” - 원문의 단락 구성 유지
번역방법2. (지시문.) 지시문./“대화문.” - 대화문과 지시문 단락 분리
번역방법3. 대화문을 직접 인용절로 지시문에 내포
번역방법4. 대화문을 간접 인용절로 지시문에 내포

지시문으로 이루어진 단락에 독립적인 대화문이 연결되는 것은 원문에서도 예외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대화문을 다른 단락으로 분리하거나 대화문을 직접 인용절이나 간접 인용절로 지시문에 내포한다. ⑥유형에서는 대화문을 간접 인용절로 지시문에 내포하는 방법이 없었는데, ⑦유형에만 이러한 번역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원문에서 따옴표를 사용하였다면 번역문에서도 간접 인용절로 처리하기보다 따옴표를 사용하여 직접 인용절로 번역하는 것이 현장성과 원문의 의도를 살리는 방법이다.

www.kci.go.kr

5. 결론

이상으로, 영한 소설 번역에서 직접 인용 구문이 포함된 단락의 다양한 번역 방법을 살펴보았다.

영문에서는 지시문과 대화문이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문장이더라도 하나의 단락 안에 놓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우리의 규범에서는 대화문을 지시문과 같은 줄에 이어 쓰지 않기 때문에 번역문에서 우리의 규범을 따르기도 하고, 원문의 단락 구성을 그대로 따르기도 하였다. 아동을 예상 독자로 하는 번역문에서는 우리의 규범을 따른 반면, 성인을 예상 독자로 하는 번역문에서는 대체로 원문의 단락 구성을 유지하여, 독자에 따라 단락 구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성인 대상 번역문 가운데 우리의 단락 규범을 따른 번역문은 이기선 옮김(2012)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원문에서 서로 다른 단락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번역문에서 하나의 단락으로 통합하기도 하였는데, 이때에는 지시문의 주어를 일치시킴으로써 문장 간의 결속구조를 강화하였다.

또, 영어에서 원화자의 발화가 직접 인용절로서 인용상위문에 반점이나 콜론으로 연결될 때 국어에 가장 가까운 번역은 원화자의 발화를 인용격 조사와 함께 인용상위문에 안긴 구조로 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번역문들에서는 대화문(직접 인용문에 해당)을 지시문(인용상위문에 해당)에 내포된 절이 아닌, 지시문과 분리된 하나의 독립적인 문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공통되고 일반적인 번역 방법이었다. 이는 등장인물 간의 대화가 이야기 진행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설의 장르적 특성과, 대화문을 직접 인용절로 지시문에 내포하지 않고 단독 문장으로 처리하는 우리 소설의 일반적인 대화문 문장 구성 방식을 반영한 것이다.

대화문과 지시문의 순서도 다양하게 번역되었다. 지시문이 대화문 뒤에 오거나 지시문이 대화문 앞에 올 때는 대체로 원문의 순서가 유지되었으나, 지시문이 하나의 대화문 중간, 혹은 두 대화문 사이에 놓일 때는 원문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도 하고 지시문을 대화문의 뒤나 앞으로 이동하기도 하였다. 두 대화문 사이가 아니라 하나의 대화문 중간에 지시문을 두는 것은 우리의 문장법에 어긋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텍스트 가운데 대화문과 지시문의 순서까지 원문을 그대로 따른 번역문은 김영하 옮김(2009)뿐이었다. 김석희 옮김(2013)과

www.kci.go.kr

김욱동 옮김(2010)은 단락 구분은 원문을 따랐지만, 문장의 구성만큼은 우리의 규범을 준수하였다. 특히, 원문에서 지시문이 하나의 대화문 중간에 놓여 있을 때는 지시문의 내용이 앞의 대화부에만 해당하는 설명인 경우도 있고 특정한 정보를 강조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성이 그러한 문장의 어순에 나타나 있기도 하므로, 어순의 변형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대화문에 이어지는 지시문이 잉여적 정보일 때는 지시문을 생략하는 변형도 있었다. 이러한 번역은 김석희 옮김(2013)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독자가 대화문에 대해 그 발화자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서 그 발화자를 지시문의 주어로 나타낼 필요가 없고 지시문의 동사구가 단순히 '말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질 때는 지시문이 잉여적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지시문을 생략함으로써 텍스트의 경제성을 높였다.

이와 같이 영한 소설 번역에서 직접 인용 구문이 포함된 단락을 번역할 때에는 원문의 형식이나 언어 구조적인 차이뿐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 예상 독자, 도착어권의 규범 및 담화 관습 등이 고려되었으며, 텍스트의 측면에서 소설이라는 장르적 특성과 결속구조, 문장의 경제성과 의미의 명확성, 저자의 의도성, 독자의 가독성 및 용인성 등도 고려되었다. 강지혜(2008: 34)는 뉴스 텍스트의 직접 인용문 번역에 대해 "뉴스 텍스트의 직접 인용문 번역은, 원문 기사를 새로운 언어로 전환하는 언어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통 상황, 목적, 독자들을 위해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문제"라고 하였다. 소설 또한 도착어권에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기능해야 하며 독자의 가독성과 용인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소설의 직접 인용문 번역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다만, 뉴스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문의 형식에는 얽매이지 않지만, 소설과 같은 문학 텍스트는 원문의 미학적 형식을 전달해야 하므로 원문의 형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원문의 형식과 독자의 용인성이라는 양단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 마련이다.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여러 번역문들은 직접 인용 구문 단락의 번역에서 그 치우친 정도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아동 대상의 두 번역문과 이기선 옮김(2012)이 독자의 용인성에 좀 더 치중하였다면 김영하 옮김(2009)은 원문의 형식에 좀 더 치중하였고, 김석희 옮김(2013)과 김욱동 옮김(2010)은 그 중간에 위치하며 특히 텍스트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돋보인다.

www.kci.go.kr

본고는 이 중, 직접 인용 구문 번역에서 원문의 형식을 가장 많이 살린 김영하 옮김(2009)에 주목한다. 번역가이자 소설가인 그가 우리 소설의 규범과는 다소 이질적인 원문의 직접 인용문 형식을 고수한 이유는 같은 작가의 입장에서 원문의 형식을 최대한 존중해 주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2.1에서 보았듯이 오늘날 우리 소설이 대화문 단락 구성에서도 전통적인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번역문에만 우리의 전통적인 관습과 규범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원문의 형식을 어디까지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그 형식이라는 것이 원저자의 미학적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언어 구조적 차이, 혹은 두 담화 공동체 간의 서로 다른 담화 관습에 기인한 것이라면 원문의 형식을 전달하는 데에도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번역 전략의 선택은 오롯이 번역자의 몫이고, 번역문의 선택은 독자의 몫이다. 다만, 번역자의 의도가 어떠하였든, 번역을 통한 원문 형식의 유입 및 독자의 선택에 따른 그 수용이 우리의 담화 관습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 긍정적이다. 번역 문학이 한국 현대 문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감안하면, 번역자에게 번역 전략의 선택은 더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강지혜 (2008)「번역에서 인용의 문제: CNN.com 뉴스텍스트를 중심으로」,『번역학연구』9(4): 7-40.
교육과학기술부 (2011a)『국어 듣기・말하기・쓰기 5-1』, 서울: 미래엔.
교육과학기술부 (2011b)『국어 읽기 5-1』, 서울: 미래엔.
김도훈 (2011)『문장부호의 번역학』, 서울: 한국문화사.
김욱동 (2013)『위대한 개츠비를 다시 읽다』, 서울: 이숲에올빼미.
김정남 (2005)「신문 기사 인용문의 특성에 대하여」,『국어학』46: 277-94.
김정우 (1994)『영어-한국어 번역의 언어학적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김태옥・이현호 옮김 (1995)『텍스트 언어학 입문』, 서울: 한신문화사

www.kci.go.kr

(Beaugrande · Dressler (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Longman.)
김형철 (2003)「연변지역 영-한 번역문의 특징-헤밍웨이의 살인자를 중심으로」,『배달말』33: 263-99.
김혜영 (2009)「국어 번역 글쓰기의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혜영 (2012)「번역 글쓰기의 단락 구성 연구」,『통번역교육연구』10(3): 211-46.
남기심 (1971)「인용문의 구조와 성격」,『동방학지』12: 223-33.
박찬석 옮김 (2004)『사라, 버스를 타다』, 서울: 사계절.
안정효 (2006)『안정효의 글쓰기 만보』, 서울: 모멘토.
안정효 (2008)『번역의 공격과 수비』, 서울: 세경.
양귀자 (1987)『원미동 사람들』, 서울: 문학과지성사.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5)『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파주: 창비.
이필영 (1993)『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서울: 탑출판사.
이영옥 (2002)「한국어와 영어 간 언어구조의 차이에 따른 번역의 문제-인용문의 번역을 중심으로」,『번역학연구』3(1): 59-81.
이창덕 (1999)「현대 국어 인용 체계 연구」,『텍스트언어학』6: 255-99.
정희자 (1999)『담화와 문법』, 서울: 한신문화사.
Levinson, S. C.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P.
Reiss, K. (1977/89) 'Text types, translation types and translation assessment' translated by A. Chesterman, in A. Chesterman (ed.) (1989) *Readings in Translation Theory*, Helsinki: Finn Lectura, 105-15.

<분석 대상>

김석희 옮김 (2013)『위대한 개츠비』, 서울: 열림원.
김선희 편 (2002)『위대한 개츠비』, 서울: 지경사.
김영하 옮김 (2009)『위대한 개츠비』, 파주: 문학동네.
김욱동 옮김 (2007)『위대한 개츠비』, 파주: 푸른숲주니어.
김욱동 옮김 (2010)『위대한 개츠비』, 서울: 민음사.

www.kci.go.kr

이기선 옮김 (2012)『위대한 개츠비』, 서울: 더클래식.

F. Scott Fitzgerald (1991) *The Great Gatsby*, New York: Cambridge UP.

F. Scott Fitzgerald (2000) *The Great Gatsby*, London: Penguin Classics.

F. Scott Fitzgerald (2004) *The Great Gatsby*, New York: Scribner.

F. Scott Fitzgerald (2008) *The Great Gatsby*, A Project Gutenberg of Australia eBook. Retrieved June 2, 2014, from http://gutenberg.net.au/ebooks02/0200041.txt

F. Scott Fitzgerald (2014) *The Great Gatsby*, eBooks@Adelaide. Retrieved June 2, 2014, from http://ebooks.adelaide.edu.au/f/fitzgerald/f_scott/gatsby

www.kci.go.kr

[Abstract]

Translation Writing of Direct Quotation

Kim, Hyeyoung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analyzes how construction of paragraphs with direct quotation undergo changes in the process of translating novel and potential factors compelling those changes. Comparison is made between the typical forms of paragraphs with direct quotation in the Korean Source Text with the translated version in the English Target Text. Then, an analysis is carried out on the translation methods in converting the paragraphs with direct quotations and possible factors influencing reconstruction in English into Korean novel translation.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1. Single paragraph in ST is divided into several paragraphs in TT, or two ST paragraphs are merged as one paragraph.

2. Reporting clauses and reported speech in ST sentences are translated as individual sentences in TT.

3. While the ST reporting clauses are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reported speech or between two reported speeches, the TT reporting clauses are either moved to the front or the rear of the reported speech.

4. Reporting clauses are eliminated in TT when they are located at the rear or in the middle of the reported speech in ST and thus provide redundant information.

Factors that influence the translation of paragraphs with direct quotation are not only the stylistic form in ST but also social aspects such as TT readers and discourse conventions in the target language community. In textual aspect, factors that potentially influence translation process include characteristics of

www.kci.go.kr

genre, cohesion, economy of sentence, explicitness of meaning, intentionality, readability and acceptability, etc. Translators decided translation strategy in consideration of all these factors.

▸ Key Words: direct quotation, conversation, paragraph construction, novel translation, translation writing

김혜영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국어교육학과 조교수
kimhy@gjue.ac.kr
관심분야: 번역 글쓰기, 코퍼스 기반 번역학

논문투고일: 2014년 7월 31일
심사완료일: 2013년 8월 29일
게재확정일: 2013년 9월 15일

www.kci.go.kr